

첫인상이 좋은 작품, 드라마 [비밀의 숲] (2017)

2017년 6월 14일

촬영기술과 편집기술의 최대치를 보여주듯 긴박감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던 1화의 용의자 강진섭 (배우 윤경호) 추격 장면은 드라마 [비밀의 숲] (2017, 극본 이수연, 연출 안길호) 제작 소식을 들을 때부터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던 시청자의 기대 이상이었다. 물론, 종일 뛰고 구르며 연기했을 배우들과 추격과정에 삽입된 장애물과 난이도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려낸 연출의 힘이 더해졌기에 가능했을 거다.

16시간짜리 작품을 이제 겨우 2 시간 감상했을 뿐이지만, 내게 작품 [비밀의 숲]은 디테일로 승부했던 드라마로 기억될 것 같다. 현장 취재와 인터뷰로 직접 보고 들었기에 가능했을 플롯, 공간, 소품에서 보여주는 묘사와 설명이 다른 어느 작품보다 사실에 근거하고 구체적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전개되는 길지 않은 대화가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성격과 전체 이야기의 틀을 암시하는 역할까지 해냈다.

황시목 검사 (배우 조승우)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돌아가서 범위를 시연해 보며 범행시간을 검증해 보는 장면 역시 뛰어난 구성이었다. 조승우 배우의 뮤지컬 무대에서 단련됐을 단정한 동작연기가 돋보였고, 논리적으로 세분하여 생명력이 느껴지는 현장을 그려낸 작가의 구성이 좋았다.

텃세에도 주눅들지 않는 강단있는 형사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는 배두나 (한여진 경위 역) 배우가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을 문상하던 장면 역시 짧은 컷들이지만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가 표정과 몸짓을 통해 잘 묘사되어 최소한의 대사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 들은 느낌이였다.

새로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으로서 개혁 과정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충돌과 저항을 예상한다. 특히, 과도하게 집중된 공권력을 남용했던 검찰의 폐단을 제거하는 개혁과정에서 검찰권력 편에 서서 보도기사를 쏟아낼 언론들의 횡포를 우려한다.

사전제작을 했기에 이미 작가와 연출의 손을 떠났을 작품이지만, 남은 14시간 이야기 안에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모습과 본분이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돈과 권력에 충성하는 "검새"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려지기를 바란다. 아무리 짜라시와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소셜로 덮으려고 해도, 검사가 법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추구에 사용하면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사회질서가 파괴되는지 가감없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언론의 여론조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간접경험에 근거하여 인지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패세력과 공생하는 검사들, 뒷돈으로 법권력을 조종하는 기득권들의 편에 서서 증거자료를 빼돌리는 형사들, 그리고 성접대 현장에 동원되는 사회악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같은 하늘 아래에서도 하루 15시간 일하는 검사들, 현장 주변을 온종일 걸어서 탐문수사 하는 형사들이 존재한다. 검사와 형사가 직무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해야, 실적이나 소비자불만신고에 마음을 줄이고 점심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하며 일하다가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마는 유선방송수리기사 강진섭과 같은 시민들이 소비되거나 다치고 버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세상을 잘 담아낸 좋은 극본과 연출은 물론, 성형한 아류 연기자들이 가득한 연예산업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재능을 연마해온 배우들인, 배두나 (한여진 경위 역), 조승우 (황시목 검사 역), 유재명 (이창준 차장검사 역), 최재웅 (장 형사 역), 박진우 (김 경사 역), 윤경호 (용의자 강진섭 역), 예수정 (용의자 어머니 역) 등의 좋은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 드라마 [비밀의 숲]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으며 완성되기를 바란다.